

조상민- 브라질에 뿌린 태권도 씨앗[1]

뜻밖의 사고에 휘말려 도망치듯 브라질로

[644 호] 2009년 07월 20일 (월) 조상민 사범 tkdnews@korea.com

태권도신문은 지난 호까지 남미 아르헨티나의 태권도협회 창설에 앞장섰던 구영채 사범 수기에 이어 이번 호부터는 브라질에 국기 태권도의 씨앗을 뿌린 조상민 사범의 수기를 연재합니다. 국제태권도연맹(ITF) 간부로 활동하던 조 사범은 뜻밖의 사고에 휘말려 미화 100 달러를 들고 도망치듯 브라질로 떠났다가 맨주먹으로 현지에 도장을 세웠으며, WTF 로 적을 옮겨 오늘날 브라질 태권도의 아버지라는 칭호를받기에 이르렀습니다. [편집자 주]



나는 태권도가 천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 왔다. 그리고 국기 태권도를 이 세상에 보급하는데 한 부분을 담당했다는 데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청도관에서 청용관으로, 진무관 관장으로, 국제태권도연맹(ITF) 수석사범으로 근무하면서 국제사범 교육을 맡아 유능한 사범들을 차출, 해외에 파견하고 태권도 분류수습위원으로 활약하던 나는 1970년 어느날 갑자기 남미 브라질로 파견명령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그 당시 남미 브라질은 우리나라에 잘 알려지지 않은 생소한 나라였다.

내가 국제연맹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는 유럽이나 아시아, 또는 미국 등으로 사범을 파견하였으나 남미 쪽은 감히 생각이 미치지 못하던 곳인데 갑자기 나 자신이 브라질로 떠나게 되었다는 것은 한국 태권도의 분류가 그만큼 심화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출국 준비를 하면서 여권을 받고 비자도 받고 중앙정보부 교육도 받고 난 뒤 선후배들과의 송별 파티가 있었다. 파티는 청진동 요리집에서 열렸는데 그날 밤 큰 폭행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는 젊은 청년 5명이 술을 마시고 주민등록증을 놓고 술값을 주지 않고 말다툼을 벌인 데서 시작되었다. 그 당시는 주민등록증 발급이 처음 시작된 데다 반공을 국시로 삼고 있을 때라 사회에 전반적으로 긴장감이 고조되어 있을 때였다.

그런데 나와 같이 술자리를 한 중정 임원 김덕용 씨가 그 젊은 청년들을 타이르고 술에 취한 젊은 청년들을 내가 나서서 타일러준 것이 오히려 사고의 발단이 되었다. 젊은 청년 중 하나가 당시 서울 검찰청 검사의 동생이었고, 경찰에서는 나를 체포하기 위해 지명수배를 내린 것이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심년공부 남부아비 타불이라는 말은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인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인가? 벼랑 끝에 몰린 나는 아무에게도 의지하지 못하고 운명 앞에 홀로 선 느낌이었다. 죽음을 떠올릴 만큼 어렵고 고단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과 여러 지인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를 걱정해 주었고 무사히 출국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어머님의 걱정을 뒤로 하고 우여곡절 끝에 오른 비행기는 나를 더운 나라 브라질로 안내해주었다. 생각지도 않았던 남미 브라질. 그러나 그 선택을 간절하게 기다리게 만든 사고. 아마도 나를 브라질로 이끈 것은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큰 힘이었던 것 같다.

마침내 여름옷 몇 벌과 지참금 미화 100 달러를 가지고 1970년 6월 4일 김포공항을 떠나 일본 동경공항을 거쳐 나는 브라질로 향하게 되었다. 브라질로 향하는 비행기 속에서 나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착잡하였다. 한 분 어머님께 하직 인사도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사랑하는 형제와 친구들에게도 출국 날짜를 알리지 못하고 도망치듯 고국을 떠났던 기억은 지금까지도 내 마음을 서늘하게 만든다.

일본을 거쳐 도착한 미국 LA 국제공항에서는 일상적인 여권 압수가 도망자 신세인 나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비록 나의 목적은 브라질이고 태권도 보급이라는 중차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의 처지는 사소한 절차까지도 청천벽력처럼 느껴지게 만들었다.

조상민- 브라질에 부린 태권도 씨앗 [2]

새벽 1 시 반 낫선 땅 쌍파울 공항에

[646 호] 2009년 07월 28일 (화)

조상민 사범 ✉tkdnews@korea.com



브라질 방문의 목적과 의사가 뚜렷하였던 나는 LA 공항에서 무사히 여권을 돌려받고 페루 리마를 거쳐 브라질 쌍파울에 도착하였다. 서울 출발 3 일 만에 도착한 브라질이었다. 쌍파울 국제공항에 도착한 시각은 새벽 1 시 30 분. 그러나 아는 사람이라곤 하나도 없고 낯선 브라질 땅.

공항에서 나를 반겨주는 이도 아무도 없었다. 말도 몰도 설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이었다. 어렵게 입국 신고를 하고 공항 밖으로 나오니 어둠만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몇 개월 전에 한국을 방문한 반공포로 이봉엽 씨가 떠올랐다. 지인의 조카딸 결혼으로 고국을 찾았을 때 명함을 받아두었기에 이 사장을 찾아가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이 나라 말 한마디도 못하고 나의 서툰 영어는 통하지 않았다. 출입국 직원은 동양인인 내게 나카노(NAKANO)라는 일본인 직원을 데려다 주었다. 이 사람과는 영어로 소통이 가능하였다. 내게 무엇을 도와줄까 묻기에 이봉엽 씨 명함을 보여주며 "여기 이 사람 집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나카노는 명함을 보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NO! NO!" 라고 한다. 너무 먼 외곽지역이니 공항근처에서 하룻밤 묵고 내일 떠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내가 가야 한다고 고집하니 잠깐 기다리라면서 전화를 걸어 본다. 그러나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택시 운전사를 불러왔다. 그러면서 미화 20 달러를 택시비로 주라는 것이다. 한국서 올 때 미화 100 달러 밖에 안 가져왔는데 20 달러를 주면 80 달러를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지 걱정이지만 우선 가야하니 20 달러를 택시비로 주었다.

나카노는 택시 번호를 적고 나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을 부탁하였다. 나의 목적지는 쌍파울로 위성도시가 아니라 준디아이(JUNDIAI)라는 완전히 다른 도시였다. 택시를 타고 쌍파울시를 벗어나니 가로등도 없어지고 어둡컴컴한 하이웨이가 나타났다. 포르투갈 말은 한 마디도 모르는 나와 영어와 한국말을 한 마디도 모르는 택시 운전사는 서로예겐 벅어리나 다름없었다.

한 마디 교류도 없이 운전수 행동만 주시하면서 장시간 고개를 넘고 별판을 달려가는데 저 멀리 밝은 불빛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택시운전수가 준디아이라고 알려주었다. 나도 너무나 반가워 나의 첫 포르투갈 말 "준디아이"를 외쳤다. 브라질에 도착한 몇 시간 후인 조용한 새벽 4 시 30 분경에 명함의 주소지 집 앞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집 안에는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다. 두려운 마음을 누르고 초인종을 누르니 이 사장이 직접 나왔다. 이 사장의 얼굴은 브라질에 도착한 내게 '이제 살았구나' 하는 안도를 느끼게 하였다. 이 사장도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임무를 완수한 택시 운전사도 기쁜 얼굴로 "짜우 짜우(안녕 안녕)"를 외치며 돌아갔다.

나의 갑작스런 등장에 이 사장은 어리둥절하였지만 사정이 있어 빨리 도착했다는 나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이 사장은 연신 잘 왔다며 반겨주었다. 새벽에 깨어 있는 이 사장에게 연유를 물으니 한국여자농구팀(박신자)의 경기가 있어서 쌍파울 체육관에서 응원하고 돌아왔다는 설명이 따랐다. 공항에서 전화를 받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모든 일이 순조로웠다면 서울에서의 출발을 알렸을 것이고 누군가 나의 브라질 방문을 공항에서 반겼을 테지만 서둘러 떠난 나의 행적을 브라질에서 알 도리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마침내 브라질에 도착하게 된 것이다.

조상민- 브라질에 부린 태권도 씨앗 [3]

축구 나라에서 태권도장 준비는 막막하기만 [647 호] 2009년 08월 10일 (월) 조상민 사범 tkdnews@korea.com



다음날 최흥희 총재의 군 동기가 되시는 조서길 특무대(대장 김창용) 직속 대령께 안내를 받았다. 한국에서 온 조상민 태권도 사범, 6단. 내가 가진 공식 칭호이다. 임시 숙소에서 짐을 풀고 나니 태권도 체육관을 보고 싶어 졌다. 조 대장 역시 내가 일찍 도착하게 된 사연을 궁금해 하였다. 아직 태권도 체육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보수 1천 달러, 체육관 준비 완료라는 초청장의 내용과 현지의 상황은 나의 이른 도착을 감안하더라도 많은 차이를 보여주었다. 또한 서울과 비교하니 브라질 상파울로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였다.

나의 이러한 걱정을 이해한 이사장은 다음날 도시의 중심부로 나를 안내하였다. 명동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서야 나는 최소한 태권도를 가르칠 대상이 있긴 있구나 하는 안도를 느꼈다. 이사장은 도시 외곽으로 나를 안내해 주면서 이곳은 모두 자동차로 이동을 한다고 설명하였다.

반공포로 출신으로 브라질에 왔던 이사장 역시 처음 브라질에 도착하고 겪은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나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정도였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당시 이 사장은 폭스바겐사에 부속을 납품하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리를 잡고 계셨다. 이 사장 덕분에 자동차 회사를 견학할 수 있었던 나는 하루 1천대의 자동차를 생산한다는 믿을 수 없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브라질 현지를 파악하고 보니 브라질은 축구의 나라로 내가 도착한 70년도에 이미 월드컵 챔피언십을 차지해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었다. 내게 브라질은 축구선수 펠레와 상바 카니발과 전쟁통처럼 무질서하고 시끄러운 나라로 비춰졌다.

그래서인지 전쟁 후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고 국민 모두가 잘 살아보자고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그리움이 더 절실해지고 있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현지 생활에서의 어려움은 내게 한국으로 지속적인 편지를 보내게 만들었다. 더욱이 현실과 초청장의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나를 더욱 힘들게 하였다.

한 달반 동안 현지 사정을 이해하고 태권도장 설립을 모색하였으나 희망의 빛을 찾을 수 없었던 나는 서울 국제태권도연맹 총재께 진행상황과 브라질의 열악한 여건에 대한 설명과 함께 미국 등 타국으로 이동하는 것이 낫겠다는 보고를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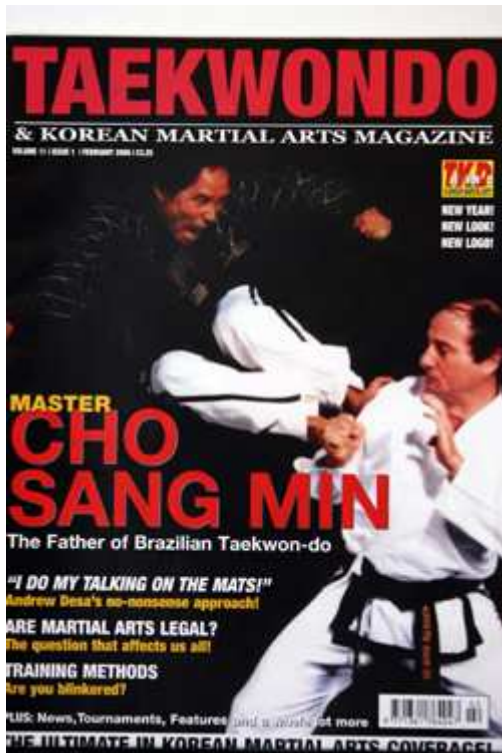
그러나 한국에서 돌아온 답변은 나의 인내와 정신력 박약에 대한 질책뿐이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약 10년 앞서 브라질 이민을 시작하여 오끼나와 가라데 및 오야마 격신카이 등 일본 무술이 이미 10년 전에 브라질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일본 가라데를 능가할 수 있는 태권도 사범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즉 브라질에 태권도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바로 나의 능력과 인내가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는 나의 처지를 다시 생각하고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는 개척자 정신이야말로 태권도인으로서 내가 가질 바른 자세라는 다짐을 새롭게 하였다.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고 브라질에서의 태권도 체육관 준비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태권도 체육관을 준비할까, 고민 중 조서길 대장에게 의논하였다. 브라질에서 국기 태권도 체육관을 개관하려면 교포들의 도움이 절실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당시 브라질 교포사회는 두 개 단체로 나뉘어 반목과 갈등을 반복하고 있었다.

더욱이 나는 두 단체 중의 하나를 제거하기 위해 한국에서 불러온 태권도 6단의 강패로 오인받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나를 초청한 단체와 대사관에서는 이런 불미스러운 소문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내게 조심할 것으로 부탁하였다. 브라질 교포사회에 정착해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조상민- 브라질에 뿌린 태권도 씨앗 [4]

이국땅 추운 겨울 가족에 대한 그리움만 더해 [648호] 2009년 08월 18일 (화) 조상민 사범 tkdnews@korea.com



그런 와중에 교민회로부터 서독 광부 출신의 단체가 교포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으니 내가 나서서 중재를 해주길 바란다는 요청이 들어왔다. 나는 이 단체에 직접 찾아가 한국에서 온 태권도 사범 6단 조상민임을 밝히고 브라질 교포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있을 경우 명예를 걸고 이들에게 맞설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국기 태권도의 바른 정신이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는지 이들은 나의 의사를 수용해주었다. 이 일을 계기로 나는 브라질 교포사회에서 질서를 지키는 인격자이자 지도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어렵게 교포사회의 신임을 얻어가고 있을 무렵 한 교포로부터의 초청파티에 참가하게 되었다. 그런데 파티에 참가한 한 인사가 내게 "한국에서 지명수배자이면서 어떻게 브라질에 오게 되었느냐"고 공개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순간 파티에 참가했던 교포 유지들의 시선이 싸늘해지고 나는 큰 죄인이 된 듯한 느낌에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러나 죄인이라 도망자로 낙인찍힐 경우 절대로 브라질에서 태권도 기반을 닦을 수 없다는 생각이 나의 뇌리를 스쳤다. 나는 호기 있게 "아니, 어떻게 수배자가 비행기를 타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국기 태권도 사범으로 이국만리에 파견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 세계에 태권도를 보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교포 유지들은 나의 말에 수긍을 해주었다. 브라질에서의 커다란 고비가 이렇게 또 지나간 것이다.

그러나 브라질에 도착한 지 2개월이 지나도록 체육관도 개관하지 못하고 생활도 안정되지 못했다. 고국의 가족들은 나의 초청장 내용에 따라 브라질에서 본국으로 많은 돈을 보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지만 정작 나로서는 본국으로부터의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였다. 가족들에게 내색도 하지 못한 채 어려운 시절을 감내해야 했다.

남미의 더운 나라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여름옷 몇 벌만을 준비한 내게 브라질의 겨울 6, 7, 8월은 밤마다 호된 추위를 선사하였다. 곤궁한 처지와 차디찬 겨울밤은 고국에 대한 그리움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에 빠지게 하였다.

아무리 생각하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남미 브라질에서 국기 태권도를 전파하여 국위를 선양하고 태권도 사범으로 성공하겠다던 나의 다짐은 나날이 작고 약해지고 있었다. 어려운 태권도 사범의 길을 포기하고 돈벌이에 나서라고 권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는 가슴깊이 분노에 가까운 화를 감추어야 했다.

나는 스스로 브라질에서 새로 태어난 한 살배기 어린아이라고 생각하고 부디 올바르게 지혜롭게 자리잡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던가. 브라질 생활 2개월 반 동안 내가 보여준 태권도 사범으로서의 리더십과 성실한 인간 조상민으로서의 태도는 교포들과 친목계를 만들게 해주었고 이 친목계를 통해 비로소 태권도 도장의 초석을 마련하게 되었다.

조상민- 브라질에 뿌린 태권도 씨앗[5]

기wa격과 시범, 태권도에 대한 관심 일으켜 [649 호] 2009년 08월 25일 (화) 조상민 사범 ✉tkdnews@korea.com



1970년 8월 8일 드디어 브라질 쌍파울에 최초의 태권도 도장을 개관하게 되었다. 한국인과 일본인이 밀집되어 있는 동네(RUA. concereiro furutado 1044 Liberdade SP)에 50여명의 우리 교포 유지들과 대한민국 총영사를 모시고 개관식을 치르고 나니 당장 관원을 모집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가 남아 있었다.

몇몇 뜻있는 교포들의 자제만으로는 태권도장 운영도, 친목계 운영을 위한 비용도 감당할 수 없는 처지였다. 태권도장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원주민들의 참여가 절실하였지만 아무리 열심히 홍보를 하여도 브라질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국기 태권도가 무엇인지, 왜 그들이 정신과 육체를 수련하기 위해 태권도를 배워야하는지를 알리기에는 부족하였다.

답답한 나의 처지를 걱정한 지인은 태권도라는 것이 너무 생소하므로 처음에는 '한국의 가라데'라는 이름으로 도장 간판을 바꾸어 원생을 모집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브라질에서 가라데는 인지도도 높고 많은 원생을 모집할 수 있다는 것이 지인의 생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남미 브라질에 온 것은 단순히 돈을 벌고자 함이 아니었지 않은가? 나는 개인 조상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기 태권도 사범 조상민으로 머나먼 이국 브라질에 온 것이다. 하지만 나의 사명은 멀고 현실적인 여건은 고국의 가족들에 대한 걱정, 도장의 운영, 친목계의 운영이라는 구체적인 이름으로 나의 하루하루를 어렵게 만들었다.

치열한 인간적인 고뇌 속에서 '태권도 사범으로서의 조상민의 의지'가 '나약한 인간 조상민으로서의 의지'보다 반 발자국 앞에 멈춰 있었다. 나의 의지와 신념을 가상히 여긴 지인들의 경제적인 지원이 계속되었지만 내가 헤쳐 나가야 하는 어려움은 나날이 깊어만 갔다.

많은 사람은 알아주지 않았지만 태권도 사범 조상민에게 쌍파울 워싱 도시 썽배르나도라는 시 생일축제에서 태권도 시범 요청이 들어왔다. 나로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태권도를 선보일 좋은 기회였다. 흔쾌히 승낙을 하고 나니 태권도 시범에 대견해줄 사람이 적당치 않았다. 결국 몇 명뿐인 한국 학생들과 어렵게 프로그램을 짜서 시범을 보여줄 수 있었다.

브라질은 한국과 달리 기와는 벽돌처럼 단단하고 벽돌은 외려 매우 약한 편이었다. 기와 격파시범을 보이고 나니 손과 발이 갈라져 피가 흐르고 있었다. 시범 다음날 브라질 신문 스포츠면에는 아주 작지만 브라질 최초의 한국인 이야기이자 태권도 이야기가 보도되었다.

교포들은 최초라는 사실뿐 아니라 호의적인 기사 내용에도 매우 기뻐하였다. 이국에서의 고국 자랑은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기 마련이다.

기사화 후 2 주쯤이 지나자 한국의 태권도가 무엇인지를 묻는 각종 매체의 문의가 몰려들기 시작하였다. TV, 신문 그리고 잡지사에서 앞다투어 기자들이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하였고, 인터뷰 초청을 자처하는 교포들이 앞 다투어 나를 찾았다.

국기 태권도 사범 조상민을 도와 영사관의 김성만 씨가 사범과 통역관의 역할을 맡아 브라질 사회에 대한민국의 국기 태권도가 무엇인지 알리기 시작하였다. 미디어를 통한 홍보는 그토록 강력하고 효과적인 것이었다.

조상민- 브라질에 부린 태권도 씨앗 [6]

교포 학생 기합주다 추방 위협까지 [650 호] 2009년 08월 31일 (월) 조상민 tkdnews@korea.com



태권도 도장에는 원주민 학생들을 비롯하여 대학생, 교수, 변호사, 판사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입관이 잇따랐다. 도장이 마련되고 어렵사리 홍보가 이루어지고 원생들이 몰려들자 내겐 또 다른 어려움이 산처럼 다가왔다. 그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이 내겐 없었던 것이다.

포르투갈 말(Portugues)을 할 줄 모르는 나는 기본적인 경례, 차렷 등은 한국말로 가르치고 태권도 동작은 몸짓으로 가르쳤지만 태권도 이해의 기본이 되는 태권도의 정신과 철학을 나눌 수는 없었다. 태권도 사범으로서 동작이라는 형식은 전수하지만 정신은 전수할 수 없다는 것은 크나큰 괴로움이자 시련이었다.

태권도 정신을 전수하기 위해 나는 이들의 언어를 배우기로 마음먹었다. 교포 학생에게 시간을 내어 포르투갈 말을 배우고 이태리 교수, 태권도 학생에게 회화를 배워가면서 'TA BOM(좋다)' 'BOM DIA(좋은 날)' 'TUDO BOM(전부 좋다)' 그리고 'OBRIGADO(감사하다)'등 기본적인 말들을 시작으로 소통능력을 쌓기 시작했다. 처음 브라질에서 첫돌배기처럼 인내로 정착하려던 마음을 되살려 이들의 언어도 아이의 마음으로 배우기로 작정한 것이다.

'날아다니는 귀신, 한국에서 왔다'라는 제목의 사진과 기사가 브라질 매스컴에 보도되자 상파울 대학, 경찰 특수부대 등에서 태권도를 가르쳐 달라고 나를 찾아와 부탁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브라질 사회에서 태권도의 위력을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것이었다.

모든 요구에 응할 수 없었던 나는 우선 특수부대와 경찰 사관학교에서 태권도를 가르쳤다. 또한 브라질의 DOPS 즉,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 중앙정보정치국에 해당하는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특별지도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안정적인 태권도장 운영과 태권도의 위상을 높이는 데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마다할 수 없었다.

태권도장의 운영은 정상화되고 브라질에서의 생활도 안정되는 것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나는 다시 한 번 시련을 맞이하게 되었다. 도장 운영을 방해하기 위해 위장 입관한 교포 학생 3명이 나날이 도장의 분위기를 어지럽히고 있었다. 학생들을 모아놓고 도장 기강을 어지럽히지 말 것을 충고하였으나, 학생들은 외려 반항을 하였다. 사범으로서 원생을 대상으로 기합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변호사를 앞세워 폭력을 사유로 경찰서에 고발하고 추방조치를 요청하였다.

교포사회는 다시 한 번 떠들썩해졌다. 상황을 파악한 나는 학생의 집으로 찾아가 부모님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나를 기다린 것은 변호사와 나를 추방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 쏘는 권총이었다. 너무 놀란 나는 4 층에서 엘리베이터도 타지 못하고 복도와 베란다를 통해 밖으로 피해야 했다. 그러나 나를 쫓아 내려온 한 사람이 나를 향해 욕설과 모함을 내뱉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렀다.

간신히 나를 다스리고 참담함을 씹으며 어렵사리 도장으로 돌아오니 학생들은 경찰국에서 나를 체포하려 다녀갔다는 비보를 전했다. 그 시간에 경찰국을 방문하면 구타당할 것이 분명하니 다음날 찾아가라며 의견이 분분했다. 영주권도 없는 내가 경찰국에 가면 어찌될 것인가? 추방이 분명하였다. 그러나 학생들 앞에서 도망치고 주저하는 비굴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다. 추방이나 구타보다 주저하고 비굴한 모습의 사범으로 기억되는 것이 더 나를 견디기 힘들게 할 것은 분명하였다.

경찰서에 간다는 나의 결심에 학생들은 증인을 서겠다며 따라 나섰고 영사관 김성만 통역과 TV 방송국 기자까지도 나의 동행이 되어 주었다. 비장함을 감추고 경찰서로 들어서는 내 발걸음은 무겁기 짝이 없었다.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추방된다면 나의 금지와 자금은 어디에서 다시 찾아야 한단 말인가.

경찰서에는 당직 근무자만이 남아있었다. 나의 방문 이유를 들은 당직 근무자는 나를 유치장에 넣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순간 내가 계약 지도를 하던 DOPS 에서 경찰서로 연락하여 나의 방면과 고소 취하를 처리해 주었다. 벼랑 끝에서 다시 한 번 살아남은 나는 변호사도 꺾지 못한 조상민 사범이라는 이름으로 교포사회에 새로운 실세로 떠오르게 되었다. 불순한 의도들이 점차 기운을 잃으면서 브라질 교포사회도 내부적으로 안정적인 질서를 갖추어갔다.

조상민- 브라질에 뿌린 태권도 씨앗 [7]

기 싸움으로 누른 일본 가라데 [651 호] 2009년 09월 08일 (화) 조상민 ✉tkdnews@korea.com



집안 단속을 하고 나니 이번에는 일본 가라데 세력과의 마찰이 가시화되었다. 개인 수련을 열심히 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다. 낮은 젊은 사람들이 우리 도장을 찾아 여기 저기 살펴보는 것이 아닌가. 태권도 수련을 위한 방문객이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외려 비우호적인 태도를 멀리서도 느낄 수 있을 뿐이었다.

나를 도와주는 김영만 교사에게 방문 용건을 알아보라고 부탁하였다. 일본 가라데 사범이라고 소개한 이들은 태권도 사범과의 대련을 청한다는 것이었다. 도장 문을 잠그고 개인 수련으로 땀에 흥뻑 젖은 도복을 벗어 손으로 짜고 자세를 바른 뒤 그들 앞으로 다가갔다.

김 교사의 통역으로 누가 먼저 대련을 할 것인지 묻자 이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였다. 이미 기 싸움에서 밀린 이들과의 대련은 의미가 없었다. 무슨 가라데냐고 묻자 이들은 오야마 격신까라고 하였다. 나는 오야마(최영희) 씨에게 한국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여준 일도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한국의 태권도가 일본의 가라데와 다른 점과 태권도의 우수한 점을 설명해주었다. 이들은 한국 태권도의 빼어남을 알고 있으며 수련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태권도 도장에서 나를 만나기까지 이들에게 태권도란 김영만 교사의 술자리에서 보인 행패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것이다. 김 교사의 태권도 정신 수련이 너무 부족해서 빚어진 불상사였으나 일본 가라데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태권도를 소개하는 계기가 되었다. 태권도는 브라질에서 먼저 자리를 잡은 가라데를 몰리치고 제자리를 찾아가는데 성공한 것이다.

약 1년 동안에 태권도 이름이 브라질 전 지역에 알려지기 시작하며 한국사범이 더 와도 되겠다는 생각에 사범 초청을 위해 한국에 연락을 하였다. 초청 사범 권금준, 이우제, 방건모, 김상인, 신광수를 1차적으로 불러와 다른 주, 다른 도시에서 활동하게 하고, 2, 3, 4차적으로 김용민, 임창선, 이태보, 홍성장, 문저길, 김정렬, 강홍순, 이계준, 변종찬, 정재규, 장영섭, 이희섭, 오주열, 김요준, 김요진, 김윤식, 최승명, 박영환, 정형수, 군 출신으로 김준호, 김남웅, 이백수 등 한국 사범을 초청하여 활동하게 하였다.

현지 교포 김구환, 김영만 등이 브라질에서 활동하고 파라과이의 명덕선, 이유복, 알젠틴의 김한창, 최남선, 볼리비아의 김석규 군우관 등이 남미 각자의 지역에서 태권도 보급을 활발하게 시작했다.

남미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범들과는 아직까지도 한국사범협회를 조직하고 1개월에 한 번씩 만나 태권도 발전과 친목을 유지하면서 협력해오고 있다.

조상민- 브라질에 뿌린 태권도 씨앗 [8]

아내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653호] 2009년 09월 15일 (화) 조상민 사범 tkdnews@korea.com



정작 한국 사범들은 불러 왔는데 우리 가족은 아직도 못 들어오고 있으니 참으로 말할 수 없이 힘들었다. 그런데 어느 날 DOPS(중앙정보정치국)에 지도하러 가서 국장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영주권이 없어 가족을 아직 초청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영주권 신청이 늦어지는 사유를 알아보니 나의 여권이 임시여권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DOPS와 브라질 법무부 및 주한 브라질 대사관의 도움으로 영주권 수속이 급속히 진행되고 1972년 나는 가족과 만날 수 있었다.

태권도가 널리 보급되고 도장도 운영하고 있었지만 사범인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롭진 않았기에 우리 가족은 한국문화회관에서 빌려준 방 한 칸에서 생활을 시작하였다. 더욱이 다른 교포 세 가족과 사범들과 함께 생활해야 했다. 여섯 살부터 1살까지 딸만 셋이었던 나는 아들을 바라는 마음에 아내에게 마음 아픈 소리를 많이 하였다. 결국 브라질에서 막내아들 알렉스를 얻었다.

가족들의 생계가 여유롭지 않자 아내는 한국에서 입고 온 옷들을 팔아 생활비를 장만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가져온 옷 한 벌이면 쌀 한 가마를 사서 먹을 수 있던 시절이었다. 아내는 새벽에 나가 밤늦게 들어오는 내게는 이야기하지 않은 채 낮에 장사를 다닌 것이다.

이웃들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들은 나는 아내에게 장사를 다니지 말라고 하였지만 당시 우리 생활로서는 아내가 장사를 그만둘 형편이 되질 못했다. 그럼에도 나는 장사를 하지 말라고 아내를 종용했고 아내는 나의 눈을 피해 가게를 꾸려나가야 했다. 경제적으로 책임지지 못하면서 아내에게는 장사를 하지 말라고 했던 가장으로서의 슬픈 자존심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내의 도움과 지원이 없었다면 브라질 태권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상민 사범이 있을 수 있었을까? 아닐 것이다. 더욱이 아내는 사범들과의 식사모임 비용까지 부담했어야 했다.

결국 아내는 은제품 선물가게 및 여성의류가게 등을 운영하면서 태권도 도장보다 훨씬 나은 수입을 얻었고, 브라질에 태권도가 자리 잡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태권도장은 안정화 되고, 가족과 아내 덕분에 생활에 여유를 얻고 생전 처음 중고 폭스바겐을 얻었을 때는 천금을 얻은 듯 기뻐 아침저녁으로 차를 보듬고 살았다. 치열한 전쟁을 지나 생활이 주는 작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조상민- 브라질에 뿌린 태권도 씨앗 [9]

ITF·WTF 분쟁에 한때 가발장사로 나서 [653 호] 2009년 09월 21일 (월) 조상민 사범 tkdnews@korea.com

내가 브라질을 중심으로 남미에서 태권도 전파에 몸을 바치던 1973년 고국에서는 국기원이 설립되는 발전이 있었다. 그러나 국제연맹(최홍희) 본부가 캐나다로 옮겨지고 한국에는 세계연맹(김운용)이 창립되자 태권도는 두 단체를 중심으로 분파를 형성하게 되었다. 국제사범들은 국제연맹형 기술과 세계연맹형 기술이 주는 혼란을 겪게 된 것이다.

내가 전파한 브라질 태권도는 1970년도부터 국제연맹형을 가르쳐왔고 브라질 내에서는 별도의 분파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단체별 마찰을 빚는 일은 없었다. 그런데 1973년도에 볼리비아태권도협회 창립 준비를 위해 국제연맹 총재께서 브라질을 방문하고자 하셨다. 그러나 당시 정부에서는 최 총재가 해외에서 박 정권에 반대하는 입장을 문제 삼아 내게 최 총재의 브라질 방문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해외에서 태권도를 전파하는 사범으로서 국제연맹 총재의 브라질 방문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던 나로서는 총재의 브라질 방문을 막을 수 없었다. 결국 무비자로 브라질을 방문한 최 총재를 공항에서 영접하고 15일간 임시 체류허가를 받아 입국을 도와드렸다.

그러자 중앙정보부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들의 신원파악을 하기 시작하였다. 총재를 모시고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정보부 영사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총재의 편을 들었던 나는 정보부 영사로부터 지속적인 방해로 받게 되었다.

이후 정보부 영사는 다른 사범을 이용하여 사범들을 이간하였고, 나를 따르는 사범을 빨갱이 취급을 하면서 협박하였다. 또한 고국에 있는 가족과 친척에게 위협을 하고 직장을 빼앗았을 뿐 아니라 괴이한 소문을 퍼뜨려 나의 심정을 어지럽게 하였다. 더욱이 내가 지도하고 있던 DOPS에 김 사범을 추천하고 나를 쫓아 내려까지 하였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자 나는 김 사범과 정보부 영사를 직접 만나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음을 밝혔다. 내 앞에서 용서를 빌었던 이들은 돌아서서는 다시 나를 공산당 빨갱이 취급을 하는 것이었다. 이들과의 신경전은 건강한 정신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정보부에서 나와 면담을 하면서 비디오테이프를 제공하였다. 이 테이프에서 나는 최 총재가 김일성을 수령으로 칭하며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나는 최 총재께 이북 태권도 시범단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존경하지만 공산주의라는 사상을 따를 수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국제연맹과의 관계에 중지부를 찍었다.

아르헨티나를 방문하고 브라질에 다시 들르려는 최 총재에게 더 이상의 도움을 드리지 못한 나는 심한 인간적인 괴로움에 시달려야만 했다. 국제연맹 총재의 사상적 배경은 많은 사범들에게 최 총재와 태권도를 떠나는 상황을 만들었다. 나 역시 태권도를 그만두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심한 고민에 빠져들었다.

어렵게 만들었던 도장도 처남들에게 말기고 생소한 상업에 뛰어들었다. 여자들 미장원을 돌아다니면서 가발장사를 시작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기 태권도 사범 6단 조상민은 그렇게 미장원을 돌아다니면서 가발을 한두 개씩 파는 장사꾼이 되었다. 아내가 준비해준 김밥을 길거리 나무그늘에 앉아 먹을 때의 참담함은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른다. 장사를 한다거나 생활이 어렵다거나 하는 것보다 나를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천직인 태권도에 대한 신념과 사랑이었다.

이미 계약을 맺었던 DOPS(정치국)와 ACADEMIA POLICIA MILITAR(경찰 사관학교)에서 태권도를 가르치고 정치인을 대상으로 개인 지도를 해나가면서 태권도를 잊지도, 그렇다고 태권도에 헌신하지도 못하는 시절이 계속되었다.

조상민- 브라질에 뿌린 태권도 씨앗 [10]

브라질을 세계연맹 회원국으로 [654 호] 2009년 10월 06일 (화) 조상민 사범 ✉tkdnews@korea.com

그러던 어느 날 주브라질 한국대사와의 오찬 모임에서 나는 정부 초청으로 한국 방문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 최홍희 총재 사건으로 후배 및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한 내게 당신이 외려 미안해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당신이 일본대사로 재직 중 일본 사무라이들이 오야붕을 철저히 섬기더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었다. 모래 같은 한국 사람들에게 시멘트를 넣어 단단한 민족을 만들면 좋겠다는 이야기였다. 남의 이야기 같지 않았다.

나는 고국방문 겸 세계연맹이 주최하는 제 2 회 세계태권도대회에 브라질 국가 대표로 출전하게 되었다. 행사 일정에 따라 청와대를 방문하고 판문점과 땅굴을 견학하기도 하였다. 국기원 김운용 총재와의 만남에서 최 총재에 대한 예우를 통해 국기 태권도의 하나됨을 보여줄 수 있기를 요청했다. 그리고 고려해보겠다는 김 총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김 총재는 나에게 무슨 관이냐고 물었다. 나는 "청도관입니다만 브라질에서는 관을 따지지 않고 다만 태권도라고만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다. 김 총재는 미국의 태권도 이야기를 해주었다. 미국 태권도사범들이 머리가 없어서 유도 사범들이 태권도를 리드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유도 사범들이 태권도를 사칭할 수 있었던 것은 국기원이 이들을 통해 단증을 발급해 주기 때문이었다. 국기원이 발급하는 단증에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단증을 엄중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브라질 태권도연맹을 세계연맹 회원단체로 등록하고(등록비 200 불) 나니 김 총재와 엄운규 원장께서는 역사적인 일을 하였다며 격려했다. 이후 국기원 및 세계연맹과의 모든 행정연락은 김운용 총재와 직접 하기로 약속하고, 단 신청 및 관리 등은 나의 의견을 존중해줄 것을 약속받았다.

최 총재 사건으로 직장을 잃었던 친척의 직장을 회복시켜주고 나서야 겨우 고향에 계신 어머님을 찾아볼 수 있었다. 어머님께 나는 죄인이었다. 떠날 때 인사도 못 드리고 머나먼 미국땅에서도 쉽사리 성공하지 못하여 고초를 겪는 모습을 보여드렸으니 이보다 더한 불효가 어디에 있겠는가. 어머님 앞에 반가움보다 눈물이 앞섰다.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다시 브라질로 돌아왔다.

태권도인으로서의 브라질 생활이 다시 시작되었다. 세계연맹에 소속되어 국기원 및 세계연맹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돌아온 나는 태권도 사범들의 재정비에 나섰다. 근거 없이 나를 모함하고 배신했던 태권도 사범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다.

나를 배신했던 김 사범이 나를 찾아와 용서를 빌었다. 아끼던 제자였던 김 사범을 내칠 수는 없었다. 다시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로 당부하고 받아들였다.

각 주로 사범들을 파견하여 태권도 보급에 힘쓰는 한편 각 주별 협회를 결성하고 조직적인 단체로 만들어가면서 정부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의 태권도협회를 만드는 일은 참으로 지난한 일이었다. 독립적인 태권도 협회를 결성할 수 있을 때까지는 복싱협회 내에 태권도 부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주 별로 태권도장을 설립하기 위해 사범 파견을 증대하고 주 협회를 창설하고 이를 토대로 브라질 태권도연맹을 조직할 때까지 모든 사범들은 노력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다.

개인지도도를 하던 정치인 수련생의 도움으로 CHO TAE KWON DO CENTER CLUB 이라는 제 2 의 태권도장을 개관하고 쌍파울 워싱턴시에 30 여개의 지관을 설립하면서 태권도 보급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조상민- 브라질에 뿌린 태권도 씨앗 [11]

브라질서 태권도, 한국인 위상 드높여 [655 호] 2009년 10월 14일 (수) 조상민 ✉tkdnews@korea.com

젊고 건강한 몸매에 이상이 온 것도 바로 이때였다. 지역별로 지관을 개관하는 한편 도장에서 지도뿐 아니라 경찰사관학교에서의 지도도 꾸준히 해오던 나는 극도의 피로로 쓰러지고 말았다. 미련한 인간이 스스로 쉬지 못하자 병이라는 선물로 강제로 쉬게 하신 것이다.

2 개월가량의 정양기간을 통해 건강도 회복하고 골프도 익히는 등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신께서는 많은 시련과 고통을 먼저 겪게 하시고 후에 정금과 같은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의 태권도 보급뿐만이 아니라 아내의 선물가게도 번창하여 나는 가족을 문화회관에서 아파트로 옮겨 생활하게 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 얻은 딸 셋과 브라질에서 얻은 아들 하나. 아이들은 내 삶의 기둥이고 의지가 되었다. 가족 모두 건강하고 가정이 안정되니 모든 일이 더욱 순조롭게 풀리는 것만 같았다.

태권도가 브라질 사회에서 급속하게 자리를 잡게 되자 나는 브라질 무도 주지스로부터의 도전장을 받게 되었다. 리우데자네이로로 간 이우제 사범을 통해 브라질 무도 주지스가 태권도와의 결투를 신청한 것이다. 도전을 받지 않을 경우 브라질 무도에 패했다는 이야기를 피할 수 없어 보였다. 도전을 수락하기도 거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나는 이 사범을 통해 경찰 입회 하에 대련을 하되 대련에 따른 부상 및 사망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건의 수락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쌍파울의 마스터 조가 대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자 브라질 무도 주지스에서는 도전을 무효화하였다. 브라질에서의 태권도는 이미 태권도 사범 조상민의 명성을 높여줄 만큼 성장했던 것이다.

그러나 브라질 무도 측에는 호기를 부리고 싶어 하는 세력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경찰 사관학교에서 태권도 지도를 하던 도중 나를 찾아 시비를 건 카푸에라 사범이 바로 그런 세력이었다. 나는 태권도 사범으로서 카푸에라 사범에게 무도인의 정신을 이야기하고 사범 간의 대련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설득하였다. 그러나 카푸에라 사범은 이미 나와 대결을 작정하였던지라 선제공격을 취하였다. 그러나 사범 간의 대결은 태권도의 우수함을 알려주는 또 다른 계기가 되었다.

브라질에 태권도가 보급되고 널리 알려지면서 점차 태권도 사범으로서의 나의 위상과 태권도의 위상, 그리고 한국인의 위상이 높아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다. 쌍파울 주지사의 경호대원들을 대동하고 경호업무를 맡기도 하였고, **Policia Militar** 장교 클럽 및 군 **Ciculo Militar** 클럽 등에서 태권도 특별활동을 담당하면서 교포사회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태권도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지고 태권도 사범으로서의 명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마약사범으로 재판을 받던 청소년에게 브라질 판사가 태권도를 권하자 변호사와 부모가 나를 찾아와 태권도 수련을 받게 해달라고 청했던 일은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일이다. 태권도의 정신으로 바른 심성을 가꿀 수 있다는 것을 브라질 사회에서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다.

대한체육회 브라질 지부가 창설되고 다양한 스포츠 교류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내가 체육회장을 맡고 있는 동안에는 축구협회의 이회택 감독, 중앙대학교 민 코치 등 축구계 인사들에게도 브라질 초청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브라질의 축구 황제 펠레에게 태권도 뱃지를 수여하는 등 태권도와 다른 스포츠 간의 교류도 시도하였다.

조상민 - 브라질에 뿌린 태권도 씨앗 (12·최종회)

브라질 태권도의 아버지로 새겨져 [656호] 2009년 10월 20일 (화) 조상민 tkdnews@korea.com

브라질 전역에 태권도가 보급되면서 그런 노력들이 브라질 백과사전을 통해 태권도를 소개하는 결실로 나타났다. 백과사전(ENCICLOPEDIA MIRADOR INTERNACIONAL)에 마스터 조상민 태권도 6단이 1970년에 브라질에 처음으로 한국의 태권도를 보급하기 시작했다는 브라질 태권도의 역사가 수록된 것이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했던가. 백과사전에 나의 천직인 태권도를 보급한 사람으로 나의 이름을 발견하는 순간 그 동안의 고생과 시련을 모두 보상받은 것과 같은 기쁨이 넘쳐흘렀다. 처음 브라질에서 태권도 도장을 개관할 때 '코리아 가라테(COREA KARATE)'라고 명하였다면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에서의 태권도는 어떻게 변형되었을까?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코리아 가라테(KOREA KARATE)'라는 간판을 접할 때마다 슬픔을 감출 수 없다. 우리에게 태권도를 태권도라 부를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제 브라질에서 조상민과 태권도는 떼어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브라질 경찰사관학교를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 태권도 교수로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대학연맹 태권도협회를 조직하였다. 도장 단위가 아니라 대학 단위의 조직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브라질 대표로 각종 세계태권도대회에 참가하여 세계적인 안목을 갖추어 나갔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내겐 브라질과 한국 정부 및 태권도 단체로부터 받은 많은 훈장과 표창 등이 쌓여갔다. 누가 보더라도 남부럽지 않은 태권도 인생의 정점을 달리고 있는 것이 분명하였다.

외부에서의 시련이 없어지자 나 스스로 개척정신을 발휘하고 싶어졌다. 이제 남미에서는 내가 없어도 대한민국 국기 태권도가 확고부동히 자리를 잡았다고 판단되었던 것이다. 미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며 1988년 6월 브라질을 떠나 미국 LA 에 도착하였다.